충남교육 지식재산 8종, 미래교육 효자 노릇 '톡톡'

기초학력, 인공지능,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자료 상표로 등록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개발해 상표로 등록한 각 분야의 교육자료들이 현장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며 미래교육 추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월 현재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지식재산은 총 8종(현재 활용되는 플랫폼 기준)으로, 기초학력 분야 1종, 인공지 능분야 3종, 환경분야 1종, 인권 분야 2 종, 민주시민교육 분야 1종 등이다. 기초학력 분야의 '온채움'은 학생들의 학습부진에 대한 각종 원인과 학습수준을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스템 이다. 시스템 내에서 개인별 교육지 원 사항과 성장 이력이 학교, 교육지 원청, 외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교육공동체의 반응이 뜨겁다. 현재 충남의 초등학교 1,597학급에서 온 채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 년에는 '중등 온채움 시스템'을 개발 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열린 온시스템 시연회에서 김지철 교육감

인공지능 분야의 '마주온'은 △교육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통톡'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 행하는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수업 톡' △AI·SW교육, 환경교육, 상상 이룸교육 등의 각종 교육자료를 제 공하는 '미래톡' 으로 구성돼 교직원 31,341명, 학생 217,578명, 학부 모 62,601명이 활용하고 있다. 작년 과 올해 도내 567명의 교사가 '마주 온 활용 수업혁신 우수사례'를 공유 하여 충남 AI·SW교육 추진에 선도 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수레'는 가상누리터(메타버스) 기반의 AI·SW교육 교구 활용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제품과 교육과정 연계 정보를 제공해 교실 속 인공지능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실증 평가단'의 검증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과 신뢰도를 갖췄다는 평이다. 현재 매월 6개의 교육기술정보 제품에 대해 에듀테크 전문가와 교과 전문가의 실 증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총 76종 의 실증 평가가 완료됐다.

'상상이룸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대 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상 상하고, 함께 만들며,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식이다. 14개 교육지원청에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소에는 매년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중심 상상이룸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연계 상상이룸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고 있다.

환경 분야의 '초록발자국'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일상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 내용을 앱에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에 따라 초록발자국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약 47,000여 명의 교육공동체가 동참하고 있다. 부 여받은 초록발자국은 지역 환경단체 활동비로 기부하면 환경사랑동행기업 에서 학생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기탁 한 기금을 11개 단체 활동비로 지원하 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교육운동을 전개해 환경교 육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지킴이, 지키'와 '노동인권 지킴이, 워키'가 유·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인권교육 애니메이션 자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충남형 학생 온라인플랫폼 '들락날 락'은 학생들의 비대면 자치활동과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관 련 자료를 촘촘히 개발하고 보급해왔 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요 구와 미래교육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자료들을 연구·개발해 대한민국 교 육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기자

▲12일 최교진 교육감이 12일에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회복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현황과 과제를 논하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미래교육 공동 연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 난 19일에 청사 대강당에서 '2023 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미래교육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관내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대 유아교육과 김영옥 명예 교수가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현 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유보통 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누리과 정(공동교육과정) ▲현황(교원, 교 육과정, 관리체계 및 재정, 관련기 관, 정보공개) ▲구성원의 이해와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펼 쳤다.

김영옥 명예교수는 유보통합의 시대적 필요성과 더불어 질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현장교원 및 관계자들이 가장 고민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한 삶 지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각 구성원들의 이해와 책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정보업무 지원 체계 강화한다

학교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하우·우수사례 등 성과 공유

전라남도교육청이 19일과 오는 20일 고흥썬밸리리조트에서 학교 현장의 정보업무 지원을 위해 각 교육지원 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정보화지원센 터 성과보고회를 갖는다.

도교육청은 2019년 2개 교육지원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2개 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정보화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학교 현장 의 정보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 형 학교 정보업무 지원 체계'를 완성 했다.

각 센터는 각급학교 정보화기기에 대한 자원 파악, 통합유지관리, 정보업무 컨설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학교별 정보 인프라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내전산망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스마트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정보화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별로 추진한 우수사례 및 운영 노하우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3년 학교정보화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공유된 우수사례와 발전 과제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취약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정보업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매 기자

천안교육지원청, 2023 천안행복교육지구 박람회 개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 약 1,600명 참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19일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 약 1,6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2023 천안행복교육지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협력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 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마을과 학교, 사람과 사람을 잇다.' 라는 주제와 걸맞게 마을과 학교가 교 육을 주제로 상호 공감하는 장이 열렸 고, 마을교육자원 정보 및 마을교육 과정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박람회는 1개의 의식행사(개막식), 5개의 마당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42개 마을교육과정 운영교 현황과 평소 볼 수 없는 다양한 국악기를 전시하는 전시마당, 천안백석중학교 치어리딩 공연, 천안오케스트라 공연, 시민강사 지원단인 한국음악앙상블 '흥'의 국악 공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작은 음악회등 공연마당이 운영되었다. 또한 '행복교육! 마을과 학교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학술마당이 펼쳐졌다. 마을학교와 마을체험처가 준비한 49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갖춰진 체험마당과 가을날의 정취를 만끽하며 음악과 함께 태조호 둘레를 걷는 힐링마당도 진행되었다.

박종덕 교육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교육을 매개로 함께 토의하고 협력하는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박람회를 통해 마을 교육자원 정보를 나누고, 마을교육과정 운영사례를 공유해 마을과 학교가 상호 공감하는 마음을 더욱 길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일 기자

대전교육청, 2023년 대전교육청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학교건축물 제로 에너지 구현을 위한 강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일 시교육청 801호에서 시설과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소속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무연수는 오광열 행정국장의 인사 및 당부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건축 단열분야 자문위원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기술직공무원들은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학교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방식에 대해 교감하고 앞으로 의무화 예정인 학교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에 대비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승진 시설과장은 "'2023년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건축물 제로 에너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며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학교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당신을 만나기까지』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성실할수록 태도가 안정되어 간다. 성실할수록 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한 잔 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

판매처: 전국 대형서점 및 네이버쇼핑(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로켓와우, 보리보리, 밀크북, 에스더블유 등), 인터파크, 교보문구, 예스24 등

가격 10.000원 / 구입문의:080-631-8114